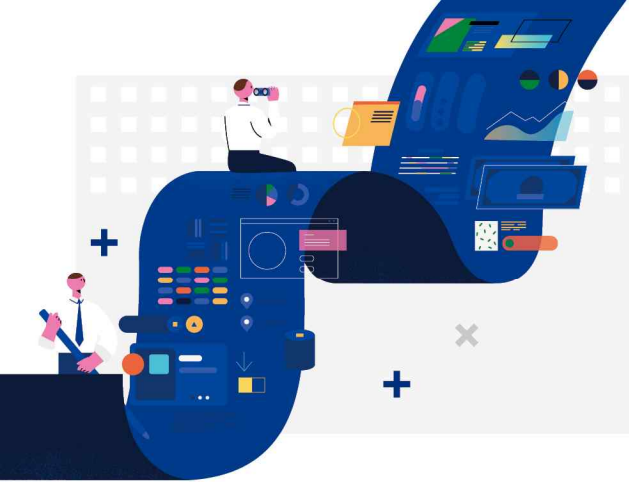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5-02호 (2025.02.21)

- 이슈
(국제) 2025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5-02호 (2025.02.21)

Cotents

I. 이 슈

(국제) 2025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교육)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개편 안내 11

(산업) 산업부·과기부, AI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지원 추진 11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12

(환경) 폐기물 매립장 부지, 안전·환경 강화 및 활용도 제고 추진 12

(경제) 2025년 한 해 동안 착한가격업소 공모·이용 시 다양한 혜택 증정 13

(산업)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 13

(산업) 폭염취약 소규모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 원 지원 14

(산업) 2025년 맞춤형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국제 > 2025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



#2025년 #경제·산업 #글로벌 이슈 #변화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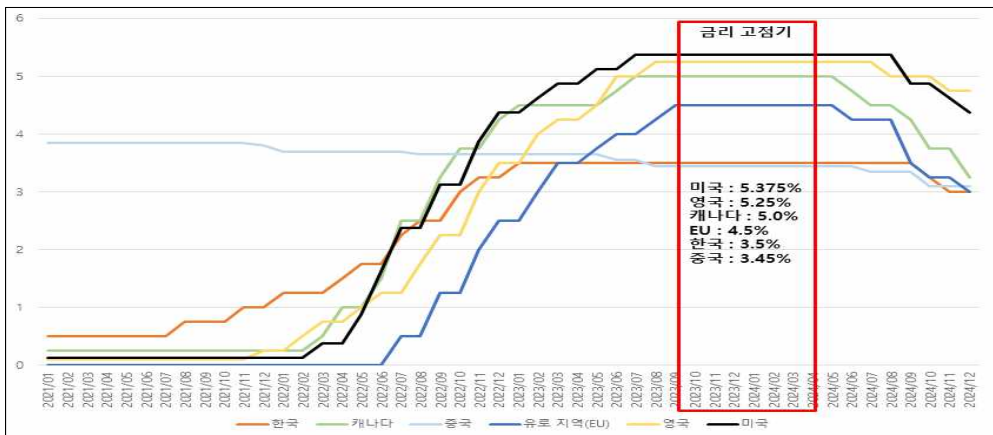
- 인천연구원은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한 국내외 경제·산업 전망 및 트렌드 자료를 참고하여 인천시의 가계 및 기업이 주목해야 할 2025년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를 선정
 - 2025년은 주요국의 정책 전환, 과학·기술의 발전, 소비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산업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시경제 △글로벌 무역 △과학·기술 △환경 △소비 등 5개 분야에서 주목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를 설정
 - 거시경제 및 무역 부문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산업에의 영향을 살펴보고,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AI 활용의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전반의 공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
 - 환경 부문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산업적 기회 및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비 부문에서는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

[표 1] 2025년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

분야	주제	주요 내용
거시경제	피벗(Pivot)의 불확실성 : 통화정책 전환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경기 회복 가속화 기대 • 자산·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이 중요
무역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 관세전쟁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 공급망 관리 및 외교 협상력 증대를 통한 수출입구조 개편 필요
과학·기술	AI의 확장 공진화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모빌리티/가전/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의 AI 확장 • 반도체·에너지 수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진화
환경	기후감수성 ¹⁾ : 기후위기와 함께 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따른 신제품·신시장 확장 가능성 •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에너지비용 증가 등 리스크관리
소비	소분화, 소형화, 개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증가 및 개인화 확산에 따른 소비문화의 변화 • 고정관념을 탈피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

1) '기후감수성'이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 및 기업의 태도를 의미함. 즉,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 능력을 말함.

- **(거시경제)**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피벗(Pivot)²⁾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및 글로벌 저성장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 주요국 중앙은행은 각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23년부터 물가상승률이 다소 완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
 -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2~3% 대로 안정됨과 동시에 실업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통화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
 - 2024년 6월 EU를 시작으로 영국(8월), 미국(9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0.5%p 인하하며 통화정책 전환의 신호탄을 발사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피벗에 동참
 - 이후에도 각국은 1~2차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2024년 12월 기준 △미국(4.375%, -1.00%p) △영국(4.75%, -0.5%p) △EU(3.00%, -1.5%p) △한국(3.0%, -0.5%p)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³⁾
 -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①경기부양 효과 제약 ②외환시장 불안 ③인플레이션 재발생 우려 ④자산·금융 변동성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
 - OECD 및 IMF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 정책 불확실성 등이 세계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2~3.3% 수준으로 전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글로벌 경기의 더딘 성장세는 각국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
 -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의 금리인하가 기대보다 느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이 미국 금리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도할 경우 국가별 금리인하 속도 차이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증대
 - 통상적으로 금리인하 시기에는 부동산·주식 등 투자자산으로의 현금 이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집값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 △가계부채 확대 △물가상승률 상승 등 부정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 존재



* 자료 : ECOS '국제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금리(검색일: 2025.02.10)'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 2) 피벗(Pivot)이란 경제 분야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말로, 기준금리를 인상(인하)하는 긴축(완화)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를 인하(인상)하는 완화(긴축)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뜻함.
- 3) 괄호 안은 2024년 12월 기준금리 수준과 2021.01~2025.01 기간 중 최고금리와의 차이를 의미함.

- **(무역)** 글로벌 경제성장을 둔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과 국민 경제의 보호를 위한 관세·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중인 가운데, 2025년 1월 '미국 우선주의'를 모토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수입절차 강화 △기술장벽 △산업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재등장
 -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자국 산업의 보호와 중국 견제를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 관세를 도입하고, 유럽, 중국 등 무역 상대국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
 - 이에 더해 2025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 달 사이 총 65건, 특히 외교·통상 분야에서 14건의 행정명령을 서명·공표하며,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
 - 이미 시행을 공표한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와 반도체·의약품·자동차 등 품목별 타깃 관세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경우, 관세부과 대상국 역시 미국에 보복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
 -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각국의 무역 당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부품 등 공급망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적응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전반적인 수출입 구조 개편을 추진할 필요
 - 주요 무역 상대국의 수출 관련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수출의 기회·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색하고, 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표 2]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분야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미국우선무역정책' 대통령 각서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해결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추가적인 경제안보 문제 등 미국의 무역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실시⁵⁾ • 즉각적인 관세부과를 언급하지 않고, 검토 관세 유형으로 △글로벌 추가 관세 △특정 법적권한에 따른 관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등을 규정하였으나 세부 내용의 부재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행정명령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2월 4일부터 캐나다산 에너지(10%)·비에너지(25%) 수입품,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25%), 중국산 수입품(10%)에 대한 관세를 부과 •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는 합의를 통해 30일 유예
철강·알루미늄 관련 관세부과 행정명령 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제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 기존의 대체협정·쿼터제·임시면제조치 등 예외 조항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상호 교역과 관세 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감하고 해외 무역 파트너와의 상호호혜적 관계 구축을 목표 • 4월 1일까지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이 높은 나라부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전방을 고려한 관세 재산정 예정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및 백악관 발표 자료 등 참고

4) The White House, "America First Trade Policy", Presidential Actions, 2025. 01. 20.
 5)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마·중 무역 관계에 대한 일련의 검토 및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제232조 조사 개시 필요성 평가, 철강·알루미늄 등 예외 및 면제 조치의 실효성 검토를 지시함.
 6) ①The White House,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Executive Order, 2025.02.01.

○ **(과학·기술)**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를 응용·활용하는 분야의 범위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이와 관련한 경제·산업적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회 포착을 위해서는 보다 단단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

- AI 기술은 기술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접목되어 더욱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모빌리티 △바이오 △로봇 △가전 △콘텐츠 △교육 등 산업 부문과의 접목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온디바이스 AI △AI 에이전트⁹⁾ 등 점차 기업과 개인의 일상 활동 영역에서의 AI 혁신도 활발
- 지난 2025년 1월 개최된 CES 2025에서는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몰입)’을 주제로 하여, 전 산업에 걸쳐 구현되는 AX(AI 전환) 사례와 함께 사용자와 가까워지는 AI 기술 등 AI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 신기술 및 비전을 제시
-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은 편¹⁰⁾이나 선도국가와 다소 격차가 존재하므로, 타 국가 대비 산업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AI를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응용·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AI 반도체 △에너지 수급 △국내 벨류체인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및 보안 등 관련 부문 전반의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이 중요
- 기업·개인이 일상 활동에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AI가 학습할 수 있는 폭넓은 데이터(데이터 산업) ②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효율 반도체(반도체산업) △AI의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에너지산업) △센서로 통신하는 부품·장비(소·부·장) 등 AI 기술 자체만이 아닌 부가적인 부분의 공진화가 필요
- 또한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관련 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대외 불안정성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국내 벨류체인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이 요구



* 자료 : Inc.com(20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5) 등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 OpenAI의 AI 기술 발전의 5단계

②The White House,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Executive Order, 2025.02.01.

③The White House,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ecutive Order, 2025.02.01.

7) ①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Executive Order, 2025.02.10.

②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Executive Order, 2025.02.11.

8) The White House,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Articles, 2025.02.13.

9) ‘AI 에이전트’란 정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상황 파악 △워크플로우 계획 수립 △외부데이터 및 분석 툴 활용 등을 통해 자율적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인간-AI의 협업 방식의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10) 「2025 비즈니스 트렌드」에 따르면 ChatGPT 수준의 거대언어모델(LLM) 기준, 한국의 AI 기술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 수준임.

○ **(환경)**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점차 일상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에서 기후감수성을 고려한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 이상기온 및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후위기가 점차 일상 속 문제로 변화하면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활발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후테크(Climaite Tech)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재활용 소재 △친환경 건축 △자원순환기술 △대체식품 개발 △탄소 포집·활용 △재난방지시스템 등으로 확장
 - 한편 소비자들이 △가정용 벌레포집기 △레이니룩¹¹⁾ △시어셔커 등 냉감소재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상기후에 대응가능한 제품들에 관심을 보이며 전반적인 소비문화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기업들 역시 제품 개발·생산, 유통 방식 및 마케팅 전략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기후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¹²⁾
- 전 세계적으로 홍수, 산불, 폭설 등의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기업·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¹³⁾하고 있으며, 이상기온으로 인해 △건강·보건 문제(온열질환, 전염병 등) △원재료 수급 불안 △에너지 비용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한 리스크관리가 필요
 - (예시) 포스코의 경우 2022년 태풍 한남노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 이후 1.9km의 차수벽을 설치하고 실시간 수위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에버랜드는 우천 시 방문고객 확보를 위한 재방문권 이벤트 및 퍼레이드 대체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방침을 마련



* 자료 : WEF(2025) 참고 및 재구성

[그림 3] 2025년 글로벌 10대 주요 리스크 요인

11) 기존의 레이니룩(Rainy look, 장마룩)은 단순히 비가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를 막아주는 기능성 우비·장화 등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수 부츠, 레인 샌들, 양우산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
 12) 기후테크가 적용된 신제품으로는 냉난방비 절약을 위한 '고단열 창호', 금호석유화학의 '자동환기창', 현대자동차의 '나노 쿨링 필름' 등이 있으며, 보험업계에서는 '날씨보장보험(일기예보와 달리 비가 오면 당일 여행비를 보험으로 지급)', '항공기 지연보험(이상기후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 시의 손해보험)'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함.
 13) 자연 및 시설물 손상에 따른 복구비용, 사업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 재해 피난민 구제비용 등으로 인한 손실을 의미,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이상기온 및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3,000억 달러로 추산됨.

- **(소비) 고물가가 지속되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1인 가구의 증가세와 소비의 개인화 현상(맞춤형 소비)이 맞물리며 ‘소분 소비’, ‘옴니보어(Omnivore) 소비’, ‘토픽경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발생¹⁴⁾**
 - 최근 소비시장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의 소분화·소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패턴화·기성화되지 않은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 가는 소비의 다양화·개별화 문화가 확산
 - 1인 가구는 대형·대량 구매보다는 소형·소량 구매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용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로 인해 △가전·가구 △식품 및 식재료 △주류 △화장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소분(소량)화·소형화가 두드러지는 추세
 - 최근에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이 공존하면서 소비에 관한 세대·성별·직업 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개인의 관심사·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소비패턴을 구축하는 옴니보어 소비가 강화¹⁵⁾
 - 뿐만 아니라 신발 브랜드 크로스(Crocs)의 전용 악세서리 ‘지비츠(Jibbitz)’,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요아정(yoajung)의 다양한 ‘토픽옵션’,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의 캐릭터 프린팅 서비스 ‘유티미’ 등 본품 외의 추가 요소에 대한 지불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의 토픽경제가 확산
 - 이 같은 트렌드를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심소비자집단(Center of Gravity, CoG) 발굴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함께, △제품·서비스의 본질적 가치 강화 △세분화된 옵션 제공 △참여형 콘텐츠 개발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소비자 니즈(needs) 만족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대사회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정보 교류·확산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서비스의 잠재고객 발굴 시 기존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아닌 소비자 그룹의 라이프 스타일·상황·가치 등을 고려하여 주력 공략 대상인 CoG를 선정하는 것이 초기 마케팅의 성공 요인이 될 전망

14) ‘소분 소비’란 기존의 제품·서비스보다 작은 용량(규모)의 제품·서비스를 찾는 트렌드를 의미하며, ‘옴니보어 소비’란 특정 브랜드, 가격대 등 주어진 고정관념·브랜드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소비패턴을 만들어가는 트렌드를, ‘토픽경제’는 기본 제품에 토픽(부수적인 가치)을 더하여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가는 트렌드를 의미함.

15) 명품 가방에 SPA 브랜드 옷을 매칭하는 ‘하이-로우 믹스’, 여성들 사이에서 스포츠 유니폼 스타일로 꾸미는 ‘블록코어(Blockcore)’ 패션의 유행, 비건 식단을 즐기지만 스테이크도 먹는 ‘플렉시테리언’ 등이 옴니보어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

- 2025년 1월 기준 국내 반도체산업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101.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달성¹⁶⁾
 - 1월 반도체 수출은 전월대비 30.1% 감소,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101.3억 달러 수준으로,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IT 제품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HBM 및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의 영향으로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
 -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AI 등 서버에 사용되는 고용량·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
 - 메모리 반도체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한 61.8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한 35억 달러를 기록
 - 반도체 고정가격의 경우 D램이 전년동월대비 -25.0%, 낸드플래시 전년동월대비 -53.8% 등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 지속

[표 1] 반도체 수출액 및 주요품목 가격

(단위 : 억\$, \$)

구분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5.01
반도체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134.2 (50.9%)	111.8 (50.2%)	118.8 (38.8)	136.2 (37.1)	125.4 (40.3%)	124.5 (30.8%)	145.0 (31.5%)	101.3 (8.1%)
D램 고정가격	2.10	2.10	2.05	1.70	1.70	1.35	1.35	1.35
낸드플래시 고정가격	4.90	4.90	4.90	4.34	3.07	2.16	2.08	2.18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2025.02.01)', 아시아경제 등 참고 및 재구성

- (전국) 국내 반도체산업의 2024년 12월 생산 및 2025년 1월 수출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
 - (생산지수) 2024년 12월 국내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7.5%,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한 152.7로, 지난 '24년 7월 이후 꾸준히 전월대비 상승세

16)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1월 수출입 동향(2025.02.01)' 및 아시아경제(25.02.03) 참고.

- 전국 반도체 제조 부문 생산지수의 역시 전월대비 11.7%, 전년동월대비 13.9% 상승한 196.1로, IT 기기와 관련한 수요 증대에 따라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며 생산 호조가 지속
- 2024년 들어 반도체 관련 부문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출하지수는 지난 6월부터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
- **(품목별 수출액)** 2025년 1월 반도체 총수출액은 전월대비 27.0% 감소,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한 약 835.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각 부문별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감소하며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전월대비 36.0% 크게 감소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반도체 제조장비(17.5%) △메모리 반도체(5.1%) △시스템 반도체(-0.4%) △반도체 디바이스(-25.1%) 순으로 반도체 순
- **(인천)** 2024년 12월 인천 지역의 반도체 관련 생산 경기는 안정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 1월 반도체 수출 경기는 전월대비 감소세
 - **(생산지수)** 2024년 12월 기준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7.7% 감소, 전년동월대비 20.4% 증가한 154.3을 기록하였으나,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
 - 생산지수가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재고지수는 2024년 3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기 판단에 주의가 필요
 - **(품목별 수출액)** 2025년 1월 인천시 반도체 품목별 수출액 합계는 전월대비 14.2% 감소,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한 약 136.8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
 - 인천시의 시스템 반도체 및 메모리 반도체는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디바이스 및 제조장비 분야는 전국 추세와 달리 수출액이 증가
 - 각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반도체 제조장비(98.4%) △반도체 디바이스(0.3%) △시스템 반도체(-2.9%) △메모리 반도체(-26.7%) 순으로, 부문별 격차가 확연

[표 2]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4.09	'24.10	'24.11 (p)	'24.12 (p)	'23.12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전자부품 등 제조업	134.8	140.9	142.0	152.7	138.2	7.5	10.5
	반도체 제조업	160.6	169.8	175.6	196.1	172.2	11.7	13.9
인천	전자부품 등 제조업	162.5	185.1	167.1	154.3	128.2	-7.7	20.4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및 '반도체 제조업(C26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 지역 자료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2025.01)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5.01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97,522	-3.9	145,163	-3.8	47,641	17,235	11.6	17,020	-6.7	-215
자동차	12,181	-6.5	65,523	-19.3	53,342	831	-39.3	5,284	-19.5	4,454
기계장비	55,899	2.2	57,096	-4.7	1,198	6,971	46.1	4,742	-4.7	-2,229
바이오-의약	6,595	-18.6	6,902	24.1	307	745	-14.0	5,333	34.5	4,588
바이오-화장품	1,486	-8.9	7,284	-6.1	5,798	17	-41.0	1,266	-34.0	1,249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교육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개편 안내



#교육부

-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될 예정
 - 국어 및 수학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은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며, 영어 영역은 듣기평가 17문항을 포함한 45문항에 7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
 - 한국사 및 탐구 영역의 경우 한국사 부문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직업탐구 부문의 경우 선택과목 업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되고 사회·과학 부문은 통합 운영
 - 사회·과학 부문의 경우 출제 과목을 통합하여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기존 20문항 30분에서 25문항 40분으로 변경 운영하고, 해당 부문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 필요
 - 이 외 제2외국어·한문 영역 역시 기존보다 축소된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고 성적통지표 양식 역시 변경될 예정으로, 변경되는 수능시험 제도 및 문항 등 상세한 내용은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

산업

산업부·과기부, AI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지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가 오는 5월 30일까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산업부는 '산업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는 등 양 부처가 함께 AI 관련 산업생태계 확산을 추진
 -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에 따라 민관이 공동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입지·전력 확보방안·경영사항 등은 민간에서 제안할 예정
 -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 및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 진행하며, 공모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산업부는 AI 생태계 확산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과 AI 산업 필수 요소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AI 선도 프로젝트 △AI 에이전트·피지컬AI △산업 AI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AI 반도체 △AI 인재 △전력 인프라 △산업AI 자본 △AI 생태계 △산업AI 제도 등 10대 과제를 제시
 - 산업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업 육성, R&D 지원사업, 외국인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

#교육부

- 교육부는 2025년 첫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고등학교 신입생(중학교 3학년)과 재학생이 사전에 적응·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개통
 -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
 - 동 제도 시행에 따라 3월부터는 고등학생이 3년 동안 배울 과목과 시간표를 스스로 구성하게 되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중요해질 예정
 -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교육과정을 구성해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과목 선택 및 진로,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개발하여, △진로·학업 온라인 상담 △전자 계획표(e-플래너) △온라인 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
 - * e-플래너는 개인의 교육과정을 사전에 구성해보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자료실에서는 선택과목 안내서·학습 자료·진로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서비스 이용 희망 학생은 ‘함께학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진로·학업설계 메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상세 설명 역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환경부

- 지난 22일 환경부는 민간 매립장 사고 대응력 및 환경 감시체계 강화, 사용종료 매립장의 활용도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
 - 우선 민간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운영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재무성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의 현금 전환과 민간 매립업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의 원천차단 및 대응력 강화를 추진
 - 매립장 침출수·토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민간 매립장의 위험·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매립장 환경정보 공개 확대 추진 및 사후관리 종료 매립장 지정구역 설정을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
 - 또한 매립장의 기준을 국내 강우 유형 및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영·관리 기준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부토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 및 굴착을 유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
 - 제도의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각 매립장의 여건에 따라 사후관리기간(30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 토지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을 예정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소비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
 - 2025년에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상시화하여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활성화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5곳 발굴자에게 제공하던 ‘순은 기념메달’의 지급 대상을 3곳 이상 발굴자로 확대하고 지난해 3개소 이상 발굴자에 대해 소급 적용할 계획
 - 또한 착한가격업소 10곳 방문 또는 30회 이상 방문·인증한 소비자 500인에게도 ‘순은 기념메달’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재방문을 유도할 예정
 -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지도 앱(APP)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환급 혜택이 제공

구분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기간	3월, 5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5월, 9월, 12월	5월, 8월, 10월, 12월	5월, 9월	3~5월, 9~11월	2~5월	1.20~2월, 9월	1월, 5월, 8월, 12월
기간중 한도	1일 1회	최대 4회	월 1회	1일 1회, 최대 5회	1일 1회, 최대 5회	월 1회	제한없음	최대 5회	1일 1회
제공방식	청구할인	청구할인	청구할인	캐시백	청구할인	청구할인	포인트사용	캐시백	캐시백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지난해 대비 3.2% 증가한 1조 1,780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 초격차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
 - 지난 2월 5일 산업부는 총 92개의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과제’를 공고하였으며, 4월까지 신규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
 - 업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기계금속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산업, △우주·항공 △수소 등 미래 유망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부품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
 - 또한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의 대체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R&D와 민간투자를 선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도 확대 예정
 -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산업

폭염취약 소규모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 원 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폭염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
 - 금번 사업은 공로를 통해 건설·조선·폐기물처리업·물류창고업 등 타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
 - * 폭염취약업종 :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 위생·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 근로자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건물 구조 등으로 인한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한편, 작업장의 체감온도 측정과 온열질환자 응급조치를 위한 온습도계 및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물품도 무상 지원할 예정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2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필요

지원 장비·설비 및 물품	지원대상 사업장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 장비 :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50인 미만	2,000만 원 한도로 70%
온열환경 개선설비 :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50인 미만	3,000만 원 한도로 70%
	50인 이상 100인 미만	3,000만 원 한도로 50%

산업

2025년 맞춤형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3월 14일까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 육성 및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금번 사업은 중기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하여 10개 분야* 150개 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억 원(총사업비의 50%)을 지원할 계획
 - * 지원 분야 : 산업안전, 방위산업, 산업보안, 의약품·의료기기, 식품안전, 식품GMP, K-뷰티, K-푸드, K-조선, 수산물인증
 - 동 사업의 공고문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4일(금)까지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지원내용	구축목표 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 원	50% 이내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해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간1 이상
고도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0.5억 원			

참고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물가·실업률·정책금리 현황'.
- 현대경제연구원,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경제주평, 2025.01.17.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 험난한 風波, S.T.O.R.M.에 대비하라!」, KITA 통상리포트, 2025.01.1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5.02.13.
- 경향신문,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 후 상호관세…‘한국 위배’ 콕 집은 백악관”, 2025.02.14.
- 권기대, 「2025 비즈니스 트렌드」.
- 김광석,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 2025년을 결정지을 18가지 경제트렌드」.
- 더밀크, 「2025 글로벌 테크 트렌드」.
- 김난도·전미영·최지혜·권정윤·한다혜·이혜원·이준영·이향은·추예란·전다현, 「트렌드 코리아 2025」.
- 마크로밀 엠브레인, 「2025 트렌드 모니터」.
- Deloitte Insights, 「Tech Trends 2025」.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CES 2025로 살펴본 글로벌 기술 트렌드 : 더 가까워진 AX and more」, Trade Focus, 2025.01.17.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에이전트 시대, AI 활용 패러다임 변화」, 2024.
- Inc.com, “5 Steps That OpenAI Thinks Will Lead to Artificial Intelligence Running a Company”, 2024.07.23.
- Gartner,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5”, 2024.10.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후변화감시예측법 25일 시행…정부의 감시·예측 역할 강화”, 해양수산부·기상청, 2024.10.24.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 Report 2025」, 2025.01.15.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Economic costs of weather-related disasters soars but early warnings save lives”, 2023.05.22.
- 소비자평가, “1인 가구시대, ‘소형화’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다”, 2025.01.06.
- 우먼동아, “다양성 추구하는 옴니보어가 뜬다”, 2025.02.05.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아시아경제, “1월 D램 가격 ‘변동 無’…1분기 가격 부진 지속 전망”, 2025.02.03.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8학년도 수능 ‘통합·융합형’으로…탐구 과목, 문항 수·시간 늘린다”, 교육부, 2025.01.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조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11월부터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휴모노이드 로봇 개발·양산 본격화…‘AI 산업 확산’ 10대 과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25.01.23.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인공지능(AI) 확산 위한 밑그림 나왔다-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 개최”, 2025.01.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교육부,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교육부, 2025.01.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부지 활용에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 환경부, 2025.01.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도 ‘착한가격업소’ 환급 계속…“방문자에 기념메달도””, 행정안전부, 2025.02.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780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2025.02.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설비 지원”, 고용노동부, 2025.02.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업별 최대 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025.02.13.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2025.02.13.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5-02호(2025.02.21)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5년 02월 21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